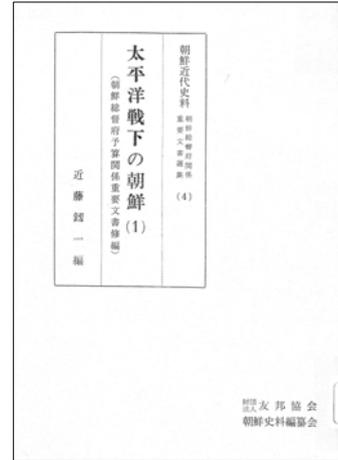


## 23 太平洋戦下の朝鮮 태평양전하의 조선

1962년 / 近藤釗一(곤도쇼이치) / 전5권, 각 권 200면 / 01.60-12 권

이 책은 1962년 12월에 일본에 있는 우방협회(友邦協會, 구 조선총독부 관리출신 모임)에서 200부 한정판으로 출판한 것인데 전5권(권당 약 200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가 일본국회 설명자료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귀중한 자료가 많다.



제1권은 조선총독부 예산관계 중요문서가 많다. 내용을 보면 1934년부터 종전 때까지의 문서가 많은데 당시 조선총독부 재정국장이었던 水田(미스다)가 제국의회 설명자료로 편찬한 것이므로 귀중한 것이 많다. 일본은 1938년부터 조선인에게 육군 특별지원병 제도를 실시한다.

그동안 지원자 합계는 80만 2,047명이었고, 이 중 입영한 사람은 1만 7,663명이었다. 이들 가운데는 5·16 혁명정부의 내각 수반이었던 송요찬 장군도 지원병 출신이란 말이 있다. 당시 훈련소는 지금의 육사 자리다. 그후 1943년 8월부터는 징병제로 바뀌었고 지원병 제도는 폐지되었다.

한편 1943년 국민총동원법에 의해 징용으로 차출된 인원은 134만 명이었는데 이들 중 남방, 북방, 사할린 등 전선으로 송출된 노무자 수는 1943년 8월 말 현재 51만 5,000명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종전 때 전사 또는 옥쇄(玉碎) 등으로 희생된 것으로 짐작된다.

육군 특별지원병 수

연도	지원자 수(명)	입소자 수(명)
1938	2,946	406
1939	12,348	613
1940	84,443	3,060
1941	144,743	3,208
1942	254,273	4,077
1943	303,294	6,300
계	802,047	17,663

제2권은 1942년 제81회 제국의회(帝國議會)용으로 작성된 것인데 조선총독부 예산 중 ‘공채(公債)’ 관계 중요문서가 수록되어 있다. 제3권은 조선총독부 ‘세제(稅制)’ 관계 문서가 수록되어 있다. 한편 조선시대의 재정 중 개국 504년에 해당하는 1895년~1910년까지 15년 간의 예산총액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1895년의 세입이 446만 엔이고, 1910년의 세입은 3,276만 엔이다.

제4권에는 우리나라의 식량관계 중요문서가 수록되어 있다. 당시 우리나라의 평년 작은 3,950만 석으로 쌀 2,330만 석, 잡곡 1,620만 석(보리 865만 석, 기타 754만 석)이었는데 매년 만주(동북 3성)로부터 200~300만 석의 잡곡을 수입하였고, 매년 600~700만 석의 조선 쌀을 일본으로 이출(移出)했다.

제5권에는 패전이 임박하자 만주로부터 콩을 비롯한 식량과 지하자원을 일본으로 실어 나르는 이른바 전가물자(轉嫁物資) 수송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데 1943년의 경우 659만 톤(수송능력 500만 톤)에 이르렀다.

이 자료는 함부로 접하기 힘든 대단히 귀중한 자료라 생각된다.